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AI, 디지털 혁명으로 생산에서 기술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지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기본사회'를, 당의 강령 전문에 포함하고, 기본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위한 입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1. 강이 있었다. 강은 넓고 평평하고 길고 유유했다. 강이 있어 산은 더 높아 보였고 들판은 더 멀어 보였으며 마을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2. 그 강에서 여름이면 먹을 감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속을 첨벙댔다. 처음에는 강가 얇은 곳에서 물장구나 치며 놀다가 차츰 해안을 칠 수 있게 되었다.

기고



조철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 100인의 아빠단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빠인 내게 가장 값진 선물이자 내 자신의 성장의 순간이다. 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 100인의 아빠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빠라는 역할이 단순히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책임을 넘어, 아이와 함께 웃고,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와의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도 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주던 순간이 생생하다. 그 작은 목소리에서 느껴진 따뜻함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고, 그 순간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성과와 책임감이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헌신이 요구되는 두 가지 역할

기본주택은 기본사회로 가는 길

급하는 기본주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신공공주택모델'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및 4·10총선의 핵심공약이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은 최초 설계 당시에는 임대주택형만 고안되었으나, 이후 분양형도 제안되었다. 다만 분양형은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할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도해야 하며, 환매가격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주택의 기초는 싱가포르의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와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토지를 임대하되 99년 임대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소유라고 볼 수 있다.

전히 매도자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없다. 시세차익을 통한 자산형성을 싱가포르 정부가 허용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와 달리, 기본주택의 사업구조에서는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참여유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이므로 재원확보가 핵심이다. 건설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저리 용자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가치로 원가보전하고, 주택 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기존 장기임대주택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건설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공사(LH)나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비가 장기간 미회수상태이므로 재무회계 상 부채가 된다. 결국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경영 수지는 악화되므로 선호하지 않는다.

기본사회는 복지사회를 넘어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확충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다. 다음 정부를 기대하며 광주·전남에서도 기본사회, 기본주택모델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강이 있었다

들이 피워내는 기묘한 형상들도 다 내 머리 위에 있었다. 나는 한 조각 작은 배였다. 찰흙이는 물의 노래를 들으며 긴 꿈을 꾸곤 하였다.

3. 배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목선이었다. 사공도 있었다. 사공은 마을에서 떨어진 강가 외딴집에 살았다. 그는 노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었다. 그의 노 젓기는 깊은 믿음을 주었다. 바람 세차고 풍랑 거친 날에도 그러한 능히 건넌갈 수 있었다. 그의 솜씨는 능숙하고 안전했다. 그러나 그는 차차 별로 부를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노를 젓는 대신 줄을 매어 당기는 줄배로 바뀌면서였다. 줄을 당길 힘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공이 될 수 있었다. 다리가 놓이면서는 아예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도 그는 강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다. 그의 아내는 그가 잡은 물고기들을 머리에 이고 장에 내다 팔았다. 그는 누구에게나 '기(역)자'로 인사했고 언제나 공손했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4. 강은 노래하고 춤추었다. 진달래 피고 뽕잎 흐드러진 봄날이면 강물도 활랑활랑 제 몸을 흔들었다. 땅에도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움텄다. 제비는 돌아와 처마 밑에 깃들었다. 바람도 흥얼흥얼 봄기운을 실어 왔다. 언제나 일 구멍이에 빠져 살던 엄마(들)도 하루쯤은 기꺼이 봄맞이에 나섰다. 꽃피는 춘삼월 연중행사처럼 벌이는 엄마들의 놀이판, 화전놀이였다. 그곳에선 엄마들도 강물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겼다. 어디에 그런 흥이 있었을까.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드는 엄마들의 하루는 전혀 고루하지 않았다. 만화방장 호

시절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흥에 겨운 노랫소리가 뱃전을 울렸다. 강물도 넘실넘실 장단을 맞추었다. 격정의 하루가 저물고 엄마들은 다시 암마로 돌아왔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식구들을 건사했다. 씨 뿌리고 김을 매고 길쌈하고 베를 찼다. 고단한 날들에 허리가 휘었지만 그 하루, 삶의 활력소가 된 것만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5. 아주 가끔강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었다. 강 아래쪽에 작은 수력발전소가 있었고 그곳에선 이따금 수문을 열었다. 방방하던 물이 빠져나가고 강이 바닥을 드러낼 때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으로 갔다. 질퍽한 강이 밑바닥엔 주먹만 한 조개들이 널려 있었다. 훑합보다 더 크고 더 통통하고 더 까만 것들을 우리는 마개라고 불렀다. 그 큰 마개가 손에 잡힐 때면 금덩이이라도 거머쥔 듯 오지고 좋았다. 몇 개만 잡아도 한 양푼이 금방 찼다. 옷이며 얼굴이며 팔다리까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런 것쯤은 아랑곳도 없었다. 다시 강물이 불고 바닥이 제 몸을 숨길 때까지의 그 짧은 몇 날은, 지금 생각해도 만족스럽기 한량없었다.

6. 강은 언제나 있었다. 강은 삶처럼, 삶은 강처럼 흘렀다. 맑고 잔잔한 날도 있었고 세차게 요동치는 날도 있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날도 있었고 바람처럼 출렁이는 날도 있었다. 비락과 천둥이 들이칠 때도 있었고 공중 얼어붙은 날도 있었다. 찌렁찌렁 우는 날도 있었고 드높이 노래하는 날도 있었다. 강은 쉽 없이 꿈틀대고 멈추고 나아가며 유유히 흘렀다. 흐르고 흘러도 다 못 흘러서 오늘도 여전히 흐르는 중이다.

100인의 아빠단, 행복한 아빠의 이야기

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광주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알게 되었고, 작년 네이비 카페를 통해 가입한 뒤부터 육아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조금씩 덜 수 있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아빠들과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다. 특히 선배 아빠들의 조언은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광주 100인의 아빠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올해 진행된 관계미션 1주차 활동인, '우리 아이와 놀면서 체크리스트 작성하기'다. 사실 처음에는 이 미션에 약간 회의적이었다. "아이와 놀 때는 그냥 자유롭게 놀면 되지, 굳이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활동에 소홀했던 만큼 올해는 제대로 참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미션에 임했다. 꼼꼼히 미션 내용을 읽고, 아이와 신체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놀고 싶어하고 간단한 제도 같은 활동을 하며 관계를 더 깊고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아이는 나와 놀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나를 향해 밝게 웃으며 "아빠 최고!"라고 외쳤던 순간은 지금도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주는 감동은 내가 왜 아빠로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이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에게서 배우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은 더 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100인의 아빠단은 단순히 광주 지역 아빠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카페를 통해 만난 다른 지역 아빠들과의 교류도 매우 유익했다. 육아라는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다.

엄마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리원 동기 모임'처럼, 아빠들에게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100인의 아빠단 네이비 카페'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육아라는 공동된 목표 아래 많은 아빠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이곳에서 얻는 정보와 응원, 아이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아빠"란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소통하는 아빠다. 아이와 함께 웃고, 아이의 작은 행복에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아빠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도 행복한 아빠로 성장해 보길 바란다.

社說

1980년 광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는 11일 만에 직무정지로 귀결됐다. 표결 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의했지만 '국민의 힘'이라는 민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가결이지만 이번은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꾀한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 이전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 1980년 이후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컸던 만큼 탄핵 가결까지 시간이 짧았다. 신속한 탄핵 가결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민주적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줬는데 그 배경에는 1980년 5월 광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이 전두환의 비

상계엄 포고령을 참고해 총칼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지만 실패한 데는 44년 전 고립무원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은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면서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탄핵 가결의 의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했다는 데 있다. 헌법 정신 실현에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다는 데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광주에 빛을 쬐다.

탄핵안 가결...국정 정상화에 모든 힘 모아야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위험적 불법 계엄을 단죄했다는 안도감에 도취하기에는 우리 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에 "탄핵이 되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가결 직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가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는 계속되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을 지난 심판 때보다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는 탄핵 소추안을 신속히 심리해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국정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길어질수록 외교와 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무엇보다 국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 어찌 됐든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고, 국민들도 함께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은 빈틈 없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여야는 협치를 통해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은 세계가 비상계엄과 탄핵안 의결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하나 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남았다.

無等鼓

계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해 계엄을 고안했다. 이른바 국가긴급권이다. 적의 공격시 질서유지를 위해 민간관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군사령관에게 이관한다고 규정했다. 일제는 1882년 프랑스를 모방해 계엄령을 제정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에 적용했다. 계엄 종류를 임전지경(臨戰地境)전시와 사변)과 함위지경(合圍地境)적의 공격이나 포위, 기타 사변)으로 나뉘 전자가 선포되면 계

16 군사 쿠데타, 유신조치, 부마항쟁,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병역으로 질서를 유지할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시했다.

헌법 학자들은 '헌법이 자유의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와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억압·유예하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밀 수 있다는 의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심판을 받게됐다. 이제 무시무시한 계엄을 명시 사무를 모두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헌법과 형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를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비상계엄이 선포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다.

비상계엄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제64조)에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는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헌법을 토대로 이듬해 법률 제 69호로 계엄법이 제정됐다. 우리 계엄법은 일본의 계엄법을 본 떠 임전지경을 '경비계엄', 함위지경을 '비상계엄'으로 번역해 명문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선포한 비상계엄의 뿌리다. 집권자들은 계엄을 남발하고 악용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에서 5·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심판을 받게됐다. 이제 무시무시한 계엄을 명시 사무를 모두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한 헌법과 형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를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비상계엄이 선포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